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엠 4:31-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노회서기
발신위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제 목 총회 북한선교주일 예배자료 배포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총회는 1977년 제62회 총회에서 6월 넷째주일을 '북한선교주일'로 제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6월 28일은 총회제정주일인 '북한선교주일'이니 지노회의 소속교회들이 불임의 예배자료들을 참고하여 북한선교주일을 지키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자료를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2026년 제110회기 북한선교주일 예배자료. 끝.

총 회 장
위 원 장

정 이 상



실장 이은미 총무 류성환 사무총장 최상도

시행 도농·사회처-808 (2026.06.04)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연지동) ,6F/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8

전송 02-747-0043

/ deux@pcknet.org

접수-195

2026/06/09

서울북노회

/ www.pck.or.kr

/ 공개

제 110 회기

북한선교주일

2026. 6. 28.



PCK

NORTH AND SOUTH KOREA MISSION & UNIFICATION COMMITTEE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차 례

북한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3
북한선교주일 예배예식서	4
- 성인예배 기도문(공동기도문)	5
- 성인예배 설교문	6
- 청소년예배 기도문	13
- 청소년예배 설교문	14
- 어린이예배 기도문	16
- 어린이예배(저학년) 설교문	17
- 어린이예배(고학년) 설교문	20
- 유아유치예배 설교문	23

북한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노회와 9,446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는 1977년 제62회 총회에서 6월 넷째 주일을 ‘북한선교주일’로 제정하였고, 2002년 제87회 총회에서는 ‘남북한선교통일기도운동’을 결의하여 교단 차원의 기도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통합과 합동 양 교단이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평화통일 비전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023년에는 ‘샬롬 - 평화통일 특별기도주간’을 선포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 왔습니다.

2026년 올해 북한선교주일(6월 28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분단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오늘, 이 땅에도 여전히 깊이 새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파주에서 고성까지 이어진 248킬로미터의 철조망은 오늘도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고통은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온 실향민 어르신들이 계시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 형제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정치·외교·경제·군사적 협력과 노력이 반복되었지만, 그 어떤 인간적 노력도 이 분열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인간의 결단이나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후 5:18)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화해의 증거입니다. 그 화해의 하나님께서 이제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으로 부르며(고후 5:20), 화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화해의 물결이 교회를 넘어 한반도와 온 세계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북한선교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아직도 갈라진 이 땅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 훈 목사

북한선교주일 예배순

인도 : ○○○ 목사

예 배 부 림 인 도 자

주님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 화해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 같 이

교 독 문 102번 (나라 사랑 (4)) 다 같 이

대 표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5:18~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화해의 직책” ○○○ 목사

기 도 말 은 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 북한선교를 위한 공동기도문

봉 헌 기 도 말 은 이
〈북한선교헌금〉

찬 송 475장 (인류는 하나되게) 다 같 이

파 송 사 ○○○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
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화해와 평화의 씨앗
을 심는 '화해의 대사'가 되십시오.

축 도 ○○○ 목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해의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화해의 사신으로
세우시고 북한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 북한선교를 위한 공동기도문

한반도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북한선교주일을 맞아 우리 민족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단 80년을 넘어서도 이념과 체제의 장벽 속에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우리의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통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거두시고, 대화와 신뢰로 서로를 마주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경쟁과 적대를 넘어 협력과 공존의 새 역사를 열어 가게 하옵소서.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통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어 세계에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통일된 한반도가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세계를 향해 화해와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남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해의 직책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리는 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중동의 포성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76년 전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밥상에 앉았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55마일, 248킬로미터의 철조망이 지금도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난 76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정치적 협상도 있었고, 경제적 지원도 있었고, 군사적 대화도 있었고, 문화 교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습니까?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협상과 회담이 있었지만, 남북한의 철책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완전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군사적 대치는 오히려 더 깊어 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2천 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가 살던 1세기 로마 세계에도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 로마 제국의 지배자와 식민지 백성들 사이의 갈등과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세계를 살았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화해는 인간의 방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화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분단의 땅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해의 주제

먼저, 18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본문 18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시고”의 헬라어 원어는 카탈라쏘(*καταλλάσσω*)입니다. 이는 원래 ‘단절되고 적대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카탈라쏘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분쟁의 해소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협상과 평화 협정을 통해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카탈라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개인 간의 깊은 갈등을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오래된 원한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화해에 이르는 것도 카탈라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카탈라쏘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카탈라쏘의 주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쪽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절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화해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14~17절입니다.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
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
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캔델라 그로보스(Kandela Groves)는 우리
가 잘 아는 〈주는 평화(He is Our Peace)〉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

주는 평화(He Is Our Peace)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는 분이십니다. 국가 간의
막힌 담, 인종 간의 막힌 담, 교파 간의 막힌 담, 남북 간의 막힌 담까지도 모두 허
무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화해의 하나
님이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주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인 된 우리와 화해를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2. 화해의 직책

그 화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1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18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파견된 “사신(使臣)”, 대사(大使)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신, 대사가 누구입니까? 사신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파견한 왕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하는 대사입니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의 바울서신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18절입니다.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의 권면처럼, 화해의 메시지를 실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의 상징인 ‘코번트리 못 십자가’(Coventry Cross of Nails)를 아십니까? 코번트리 못 십자가는 세 개의 못을 철사로 엮어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11월 14일 밤, 독일 공군은 500대 이상의 폭격기를 동원해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코번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당시 코번트리는 영국의 항공기 엔진, 자동차, 군용 차량, 탄약 등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이 밀집한 핵심 산업 도시였기에, 독일군은 이곳을 폭격하여 영국의 전쟁 물자 생산 기반을 무력화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이 폭격으로 코번트리 도시의 2/3가 파괴되고, 1,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¹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코번트리 대성당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처: 독일 킬 니콜라이교회에 있는 코번트리 못 십자가 (Cross of Nails from Coventry in the Nikolaikirche, Kiel)

폭격 다음 날, 코번트리 대성당의 신부였던 아서 웨일스(Arthur Wales)는 슬픔에 잠겨 대성당 잔해에서 걸으며 폐허가 된 성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백 년 된 불에 탄 못 몇 개였습니다. 그는 그 못 세 개를 철사로 묶어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코번트리 대성당의 주교인 리처드 하워드(Richard Howard)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2년 후인 1947년, 리처드 하워드 주교는 영국을 공격했던 독일의 킬(Kiel)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코번트리 못 십자가를 성 니콜라이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폭격을 받은 피해자가 폭격을 가한 나라를 향해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민 것

¹ 코번트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ttps://ko.wikipedia.org/wiki/코번트리_공습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워드 주교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수백 개의 못 십자가를 전 세계 교회, 학교, 교도소 등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못 십자가를 받은 기관들이 코번트리 교회의 평화와 화해, 정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못 십자가 공동체(Community of the Cross of Nails)”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에는 전 세계 약 26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1958년에 작성된 “코번트리 화해의 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며 평화와 화해, 정의의 정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코번트리 화해의 기도문(Litany of Reconciliation)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민족과 민족을, 인종과 인종을, 계층과 계층을 갈라놓는 증오를,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과 나라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사람의 손으로 이룬 수고를 착취하고 땅을 황폐케 하는 탐심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시기하는 우리의 질투를,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옥에 갇힌 자들과 집 없는 자들과 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우리의 무관심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의 몸을 욕되게 하는 정욕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교만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4:32)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 ▶ 첫째,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 화해의 사신 직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북한선교주일,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도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2,600만 형제자매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화해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손을 내미는 도전입니다. 우리 주변의 북한이탈주민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화해의 사신으로서의 삶입니다.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해의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화해의 사신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행동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후 기도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이루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한선교주일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화해의 사신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섬기며,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사신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최형근 교수 제공

북한선교주일 청소년예배 기도문

한반도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북한선교주일을 맞아, 저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분단된 땅에서 태어나 자란 저희이지만, 그동안 이 분단의 아픔과 북한의 또래 친구들에 대해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80년이 넘도록 이어진 분단의 벽 앞에서 저희는 때로는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남과 북이 적대와 불신을 넘어 대화와 신뢰로 서로를 마주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도 저희와 같은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통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도 통일과 복음을 위한 이 일에 방관자가 아닌 동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최형근 교수 제공

하나의 품, One Hug

여러분 혹시 친구랑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워본 적 있나요? 별일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며칠 동안 말 안하고, 괜히 더 멀어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형제자매랑 리모컨 하나, 게임기 하나 때문에 크게 다투곤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한 민족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게 하시며,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유다와 그의 짝”(남유다)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과 그의 짝”(북이스라엘)입니다. 두 막대기는 분열과 갈등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포로로 끌려갔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회복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역사속에는 여러 화해와 평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로, 남아프리카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 종식과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남아공은 흑인과 백인을 철저히 분리하는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을 시행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 과거의 잘못을 보복하지 않고,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며 사회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둘째로, 미국-남북전쟁 이후의 화해입니다.

19세기 미국은 노예제 문제로 북군과 남군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전쟁 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부를 철저히 짓밟기보다, “원한없이, 자비로”(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라는 유명한 연설로 화해와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독일 통일(1990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마침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모두 깊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선택한 순간들이에요. 에스겔 말씀처럼 “둘을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떠올리며 연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으로 화해의 손길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 속에도 작은 ‘분단’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형제자매와의 갈등, 부모님과 오해, 내 힘으로는 화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먼저 손 내밀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하나되는 공동체적 차원으로 교회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나 학교에서도 때로는 갈라지고 나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껴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민족적 차원으로 분단과 평화통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민족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통일은 정치가 아니라 먼저 평화 감수성, 즉 서로를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으셨듯이 갈라진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설교후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갈라진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분열과 갈등도 주님의 손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의 품, One Hug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회 교육자원부 제공

북한선교주일 어린이예배 기도문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북한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가 북한의 친구들을 잊고 지낸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통일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심어 주세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 주세요.
남한과 북한이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 주세요.
북한에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세요.
언젠가 북한 친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북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용기와 건강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최형근 교수 제공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반도 지도를 반씩 거꾸로 보여주며)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이 두 그림을 맞춰 볼까요? (붙여서 보여주며) 바로 한반도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는 원래 이렇게 하나의 나라였어요. (다시 나누기) 하지만 지금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렇게 나누어 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서로 오고가지 못하고, 단절되어 큰 슬픔을 겪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둘이 되었던 나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찾아가 요청했어요.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줄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요. 3일의 시간을 주시오.”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한 의견을 구했어요. “왕이시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젊은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전보다 더 힘들게 일을 시키세요.” 왕은 결국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힘들게 일을 시키겠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않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힘이 센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에 앓수르가 쳐들어왔어요(왕하 17장). 앓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앓수르의 손에 넘기셨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흩어지게 되었어요.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왕하 25장) 멸망하여 사라졌어요. 바벨론은 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이 살던 궁전을 불태웠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도 모조리 불태웠어요. 또 성전의 물건들을 부수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또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했어요. 사람들은 흩어지고 고통과 슬픔에 빠졌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할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이지요.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러 방법으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겔 37:14,표준새번역).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 막대기들을 연결하여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거라. 사람들이 어떤 뜻인지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막대기 두 개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거라.”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가서 살고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겠다.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근르을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려다주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서 내가 구해주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모으시고, 죄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세요

우리나라도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요.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서로 오고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슬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며 하나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나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예요.** 나이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요.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단절되고 분열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예요.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되게 해 주세요!”**

총회 교육자원부 제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곳

‘통일전망대’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통일전망대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땅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보이는 북한 사람들과 산, 바다, 하늘 등의 풍경은 우리나라와 그리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북한 땅을 본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림기도 하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북한 땅이 직접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자유롭게 갈수 없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가깝고도 먼 두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둘도 나누어진 때가 있었어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말씀을 들으며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진짜 이유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다윗 왕에게 “네 집과 네 나라, 네 왕위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삼하 7:16).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도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왕상 3:14, 9:4~5).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기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어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일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왕상 11:11하).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가 아닌 그 아들이 다스릴 때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또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딱 한 지파만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말씀대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에게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방 노예들이 하는 고된 일을 하게 되자 왕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솔로몬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일은 실패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북부 지역에 있는 열 지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북부 지역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앞에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시켰던 심한 노동을 가볍게 해 준다면 르호보암 왕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어요. 르호보암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했어요.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었어요.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모질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왕은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어리석게도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자 북부 지역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 왕을 따랐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수백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앗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나쁜 일을 일삼다가 멸망하여 흩어졌기에 백성들의 흔적을 찾기도 힘들었어요. 남유다 백성들도 먼 이방 나라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회복이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유다를 가리키는 ‘유다 밋,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한 막대기를 가져다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밋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붙여서 둘이 하나가 되게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겔 37:19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것은 둘을 완전한 하나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잠깐 하나가 되거나 강제적이거나 억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 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린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한 임금이다스리는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가득해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뜻, 통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미 멸망한 상태였어요. 회복의 소망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은 잠깐 하나가 되거나, 강제적이거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둘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만드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통일이예요.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요.

총회 교육자원부 제공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우리나라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옷을 입고,
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한 나라로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만날 수 없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나라처럼
나뉘는 나라가 있대요.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토막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적어라.

또 다른 하나의 나무토막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남유다라고 적어라.

그리고 그 둘을 붙여서

나무토막을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하나가 된 나무토막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도 하나였어요.

룰루랄라~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곳저곳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함께 예배하니 정말 행복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꽁! 꽁! 꽁!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탕! 탕! 탕!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전쟁을 멈추기로 했어요.
휴전선을 만들고,
선을 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쩍~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북한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남한에 있는 형과 동생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었어요.
하나였던 나라가 나뉘어 슬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다같이 전도사님(목사님)을 따라 고백해 보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설교후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래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CK

NORTH AND SOUTH KOREA MISSION & UNIFICATION COMMITTEE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